

Korean Bible: Judges

1:1 여호와께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'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?'

1: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!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

1:3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'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'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

1:4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섹에서 일만명을 죽이고

1:5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

1:6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며

1:7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'옛적에 칠십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은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'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

1: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

1:9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

1:10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였더라

1:11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

1:12 갈렙이 말하기를 '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' 하였더니

1:13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

1:14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'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'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'네가 무엇을 원하느냐?'

1:15 가로되 '내게 복을 주소서!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'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

1: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

1:17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

1:18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

1: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

1:20 우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

1:21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

1:22 요셉 족속도 벤엘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

1:23 요셉 족속이 벤엘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

1:24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

1:25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며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

1:26 그 사람이 헛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 곳의 이름이더라

1:27 므낫세가 벤스안과, 그 향리의 거민과, 다아낙과, 그 향리의 거민과, 돌과, 그 향리의 거민과, 이블르암과, 그 향리의 거민과, 므깃도와,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

1:28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

1:29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

1:30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

1:31 아셀이 악고 거민과, 시돈 거민과, 알랍과, 악십과, 헬바와, 아빅과, 르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

1:32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

1:33 납달리가 벤세메스 거민과 벤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벤세메스와 벤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

1:34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

1:35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하매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

1:36 아모리 사람의 지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

Judges Chapter 2

2:1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에 이르러 가로되 `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

2:2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이뇨 ?'

2: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`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' 하였노라

2:4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

2:5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

2: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

2:7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아를 섬겼더라

2:8 여호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세에 죽으매

2:9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가아스산 북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

2:10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

2: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

2:12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좃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

2:13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

2: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

2:15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와 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

2:16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

2:17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좃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와 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

2: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

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어늘

2:19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

2: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

2:21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

2:22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킨 것 같이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

2:23 그 열국을 머물러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

Judges Chapter 3

3:1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

3: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하사 남겨 두신 열국은

3:3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

3:4 남겨 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

3:5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, 헷 사람과, 아모리 사람과, 브리스 사람과, 히위 사람과,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

3:6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

3: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

3: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팔년을 섬겼더니

3: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

3:10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

3:11 그 땅이 태평한 지 사십년에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더라

3:12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

3:13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

3:1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십 팔년을 섬기니라

3: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나민 사람 게라의 아들 원손 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

3:16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

3:17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

3:18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

3:19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'왕이여,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' 왕이 명하여 '종용케 하라'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

3:20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러 에훗이 가로되 '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

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'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
3:21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
3:22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영기었더라
3:23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
3:24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'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밭을 가리우신다'하고
3:25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
3:26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
3:27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
3:28 무리에게 이르되 '나를 따르라 !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'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
3:29 그 때에 모압 사람 일만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
3:30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팔십년 동안 태평하였더라
3:31 에훗의 후에 아낏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

Judges Chapter 4

4:1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
4:2 여호와께서 하술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
4:3 야빈 왕은 철병거 구백승이 있어서 이십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

4: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
4:5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뵤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
4:6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'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?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일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
4:7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'
4:8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'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'
4:9 가로되 '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'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
4: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일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
4:11 모세의 장인 호박의 자손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
4: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
4:13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
4: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'일어나라 !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?'이에 바락이 일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
4:15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

4:16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앞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
 4:17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
 4:18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`나의 주여 !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'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
 4:19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`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` 하매 젓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
 4:20 그가 또 가로되 `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?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' 하고
 4:21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쥍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
 4:22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`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'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쥍에 박혔더라
 4:23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
 4: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

Judges Chapter 5

5:1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
 5:2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!
 5:3 너희 왕들아 들으라 !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!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!

5:4 여호와여 !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
 5: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
 5:6 아낏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
 5:7 이스라엘에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
 5:8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사만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
 5: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!
 5:10 흰 나귀를 탄 자들,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,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!
 5:11 활 쏘는 자의 지꺼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길는 곳에서도 여호와 의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 그 때에 여호와 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
 5:12 깟지어다, 깟지어다, 드보라여, 깟지어다, 깟지어다 ! 너는 노래할지어다, 일어날지어다 ! 바락이여,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네 사로 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
 5:13 그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
 5:14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 왔도다
 5:15 잇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잇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좇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
 5:16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이뇨 ?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

5:17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찌이뇨?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

5:18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

5:19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므깃도 물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

5: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

5:21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!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

5:22 그 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

5:23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! 너희가 거듭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

5:24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

5:25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영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

5:26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쩍을 꿰뚫었도다

5:27 그가 그의 발앞에 꾸부러지며 앞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앞에 꾸부러져 앞드러져서 그 꾸부러진 곳에 앞드러져 죽었도다

5: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'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르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' 하매

5:29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

5:30 '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?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? 사람마다 한 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

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' 하였으리라

5:31 여호와여!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돌음 같게 하시옵소서!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

Judges Chapter 6

6: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

6:2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

6:3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, 아말렉 사람,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

6:4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

6:5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

6:6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

6:7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

6: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

6:9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

6:10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

6:11 여호와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

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

6:12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'큰 용사여!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'

6: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'나의 주여!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?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대'

6:14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?

6:15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'주여!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? 보소서!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'

6: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

6: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'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!

6: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' 그가 가로되 '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'

6:19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

6:20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'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'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

6:21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와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

6: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'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!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대'

6: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! 두려워 말라! 죽지 아니하리라! 하시니라

6: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'여호와 살롬'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

6:25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의 수소 곧 칠년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

6:26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

6:27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

6:28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훼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

6:29 서로 물어 가로되 '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?'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'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' 하고

6:30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'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'

6:31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'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?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?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(神)일진대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' 하니라

6:32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

6:33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

6:34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좃고

6:35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좃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

6: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`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

6:37 보소서 !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' 하였더니

6:38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찌기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

6:39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`주여,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!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' 하였더니

6:40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

Judges Chapter 7

7: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좃은 모든 백성이 일찌기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

7: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좃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

7: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명이요 남은 자가 일만명이었더라

7: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

7: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핏물 같은 것같이 그 혀로 물을 핏물 하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

7: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물 하는 자의 수는 삼백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

7: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핏물 먹은 삼백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

7: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명은 머물러 두 나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

7:9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

7: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 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

7:11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

7: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증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

7: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`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'

7:14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'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' 하더라

7: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'일어나라!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' 하고

7:16 삼백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

7:17 그들에게 이르되 '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대로 너희도 그리하여

7:18 나와 나를 좃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! 기드온을 위하라! 하라' 하니라

7:19 기드온과 그들을 좃은 일백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

7: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'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!' 하고

7:21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달음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

7:22 삼백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

7: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

7:24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벤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

7:25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엍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엍은 스엍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

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엍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

Judges Chapter 8

8: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'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이뇨?'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

8:2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'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?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?'

8:3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엍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?'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

8:4 기드온과 그 좃은 자 삼백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

8:5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'나의 중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'

8:6 숙곳 방백들이 가로되 '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?'

8:7 기드온이 가로되 '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찢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' 하고

8:8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

8:9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'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' 하니라

8:10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중에 칼 든 자 십이만 명이 죽었고 그들을 좃아 거기 있더라

8:11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욱브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

8:12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

8: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
전장에서 돌아오다가
8:14 숙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매
숙곳 방백과 장로 칠십 칠인을 그를 위하여
기록한지라
8:1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
가로되 `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
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
있관대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
주겠느냐?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'하고
8:16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찰레로
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
8:17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
죽이니라
8:18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`너희가
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'
대답하되 `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
갈더라'
8:19 가로되 `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
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와 사심으로
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
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'하고
8:20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`일어나 그들을
죽이라'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
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
두려워함이었더라
8:21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`네가 일어나
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한 그 힘도
그러하니라'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
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뻐던 새 달
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
8:22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
이르되 `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
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
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'
8: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`내가 너희를
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
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
다스리시리라'
8: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`내가
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
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' 하니 그
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
있었음이라

8:25 무리가 대답하되 `우리가 즐거이
드리리이다' 하고 걸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
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
8:26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 수가 금
일천 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
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
의복과 그 약대 목에 돌렸던 사슬이 있었더라
8: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
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
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
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
8: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
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
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사십년에 그 땅이
태평하였더라
8: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
자기 집에 거하였는데
8: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
아들이 칠십인이었고
8:31 세겔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
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
8: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
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
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
8: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
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
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
8:34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
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
아니하며
8:35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
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
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

Judges Chapter 9

9: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겔에 가서
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
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
9:2 `청하노니 너희는 세겔 사람들의 귀에
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인이 다 너희를
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
것이 너희에게 나으냐? 또 나는 너희의
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'
9:3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
말을 온 세겔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

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
 `그는 우리 형제라'하고

9:4 바알브릿 묘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
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
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

9:5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
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인을 한
 반석 위에서 죽였도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
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

9:6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
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
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

9:7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
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
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
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를
 들으시리라

9:8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
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`너는
 우리 왕이 되라'하매

9:9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`나의
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
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
 요동하리요'한지라

9:10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
 `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'하매

9:11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`나의
 단것,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
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'한지라

9:12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`너는
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'하매

9: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`하나님과
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
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'한지라

9:14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
 `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'하매

9: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`너희가
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
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
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
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'하였느니라

9:16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
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
 의로우냐?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

선대함이나 이것이 그 행한대로 그에게
 보답함이나?

9:17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
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
 건져내었거늘

9:18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
 집을 쳐서 그 아들 칠십인을 한 반석 위에서
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
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
 삼았도다

9:19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룹바알과 그 집을
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
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
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

9:20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
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사를
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
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

9:21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
 달려 도망하여 브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

9:22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
 삼년에

9:23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
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
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

9:24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인에게 행한
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
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
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
 하심이라

9:25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
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
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
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

9:26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
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
 의뢰하니라

9:27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
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
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

9:28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`아비멜렉은
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
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
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

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
 아비멜렉을 섬기리요
 9:29 아하,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
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'하고
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
 말하니라
 9:30 그 성읍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
 말을 듣고 노하여
 9:31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
 가로되 `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
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
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
 9:32 당신은 당신을 좇은 백성으로 더불어
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
 9:33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찌기 일어나 이
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좇은 백성이
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
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'
 9:34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밤에
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
 매복하였더니
 9:35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
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백성이
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
 9:36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
 `보라!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
 내려오는도다'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`네가
 산(山)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'
 9:37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`보라!
 백성이 밭 가운데로 좇아 내려오고 또 한 때는
 므오느님 상수리나무 길로 좇아 오는도다'
 9:38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`네가 전에
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를
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
 너의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
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'
 9:39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앞서 나가서
 아비멜렉과 싸우다가
 9:40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
 도망하였고 상하여 옆드러진 자가 많아서
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
 9:41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
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
 못하게 하더니

9:42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
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
 9:43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때로 나눠
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
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
 9:44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때는 앞으로
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
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
 죽이니
 9:45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
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
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
 9:46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
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
 9:47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
 아비멜렉에게 들리매
 9:48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
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
 들고 나무가지를 찍고 그것을 가져 자기
 어깨에 메고 좇은 백성에게 이르되 `너희는
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
 행하라'하니
 9:49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
 아비멜렉을 좇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곳에
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
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일천명이었더라
 9:50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
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
 9:51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
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
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
 올라간지라
 9:52 한 여인이 멧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
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
 9:53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
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`너는 칼을 빼어
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
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'소년이
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
 9:54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
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
 9:55 아비멜렉이 그 형제 칠십인을 죽여 자기
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
 갚으셨고

9:56 또 세 겹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 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

9:57

Judges Chapter 10

10:1 아비멜렉의 후에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

10:2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이십 삼년 만에 죽으매 사밀에 장사되었더라

10:3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 이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

10:4 그에게 아들 삼십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

하봇야일이라 칭하더라

10:5 야일이 죽으매 가문에 장사되었더라

10: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, 아스다롯과, 아람의 신들과, 시돈의 신들과, 모압의 신들과, 암몬 자손의 신들과,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

10: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매

10:8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십팔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

10:9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므로

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

10: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`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'

10: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, 아모리 사람과, 암몬 자손과,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?

10: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

10: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

10: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

10: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`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!' 하고

10:16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

10:17 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 치고

10:18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`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' 하니라

Judges Chapter 11

11:1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

11:2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`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' 한지라

11:3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돛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

11: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하니라

11: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 오려고 돛 땅에 가서

11:6 입다에게 이르되 `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'

11: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`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?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?'

11:8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하되 '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게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'

11: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'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?'

11: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'여호와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'

11: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

11: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'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?'

11: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'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'

11: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

11:15 그에게 이르되 '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

11:1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

11:17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데스에 유하였더니

11:18 그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

11:19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

11:20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

11: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

11:22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

11:2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?

11:24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?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

11:25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?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? 싸운 일이 있었느냐?

11: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지 삼백년이 어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?

11: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' 하니

11:28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

11:29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에

11: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'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

11: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' 하니라

11: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
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
붙이시매

11: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
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뎀까지 크게
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
앞에 항복하였더라

11:34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
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
영접하니 그의 무남독녀라

11: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
가로되 `슬프다, 내 딸이여! 너는 나로 하여금
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
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
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'

11: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`나의 아버지여!
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
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
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
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
값으셨음이니이다'

11:37 아비에게 또 이르되 `이 일만 내게
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
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
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'

11:38 이르되 `가라!' 하고 두 달 위한하고
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
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

11:39 두 달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
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
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
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

11:40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
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

Judges Chapter 12

12: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
입다에게 이르되 `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
건너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
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? 우리가 반드시
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'

12: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`나와 나의
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툰 때에 내가
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
구원하지 아니하므로

12:3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
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
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
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
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?'
하고

12:4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
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
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
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
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
므낫세중에 있다 하였음이라

12:5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
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
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`청컨대 나로 건너게
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
사람이냐' 하여 그가 만일 `아니라' 하면

12:6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
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
못하고 십볼렛이라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
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
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
이천명이었더라

12:7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육년이라
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으매 길르앗 한 성읍에
장사되었더라

12:8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
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

12:9 그가 아들 삼십과 딸 삼십을 두었더니
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
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삼십을 데려왔더라
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칠년이라

12:10 입산이 죽으매 베들레헴에
장사되었더라

12:11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
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년 동안
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

12:12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매 스불론 땅
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

12:13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
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

12:14 그에게 아들 사십과 손자 삼십이
있어서 어린 나귀 칠십필을 탔었더라 압돈이
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팔년이라

12:15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
죽으매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
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

Judges Chapter 13

13: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의 목전에
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
사십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

13: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
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
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

13:3 여호와와 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
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'보라 ! 내가
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
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

13:4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
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
말지니라

13:5 보라 !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
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
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
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
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'

13: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
가로되 '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
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
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
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
아니하였으며

13: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
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
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
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
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'

13:8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
'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
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
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
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!'

13:9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
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
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
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

13:10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
고하여 가로되 '보소서 ! 전일에 내게
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'

13: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
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
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이까 ? 가라사대
그로라

13:12 마노아가 가로되 '당신의 말씀대로
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
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
행하오리이까 ?'

13:13 여호와와 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
'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

13:14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
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
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
것이니라'

13:15 마노아가 여호와와 의 사자에게 말씀하되
'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
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
준비하게 하소서'

13:16 여호와와 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
'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
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
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' 하니 이는
마노아가 여호와와 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
인함이었더라

13:17 마노아가 또 여호와와 의 사자에게
말씀하되 '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?
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
존송하리이다'

13:18 여호와와 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
'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? 내 이름은 기묘니라'

13:19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
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
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
아내가 본즉

13:20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
동시에 여호와와 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
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
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

13:21 여호와와 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
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
여호와와 의 사자인 줄 알고

13:22 그 아내에게 이르되 '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'

13:23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'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' 하였더라

13:24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

13:25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

Judges Chapter 14

14:1 삼손이 딘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

14:2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'내가 딘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'

14:3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'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?'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'내가 그 여자를 좋아 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' 하니

14:4 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

14:5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딘나에 내려가서 딘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지르는지라

14:6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 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

14:7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

14:8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

14:9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서

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

14:10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

14:11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명을 데려다가 동무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

14:12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'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칠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풀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

14:13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풀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' 그들이 이르되 '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'

14:14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'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' 그들이 삼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

14:15 제 칠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'너는 네 남편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? 그렇지 아니하냐?'

14:16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'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'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'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' 하였으나

14:17 칠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 칠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

14:18 제 칠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'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?'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'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' 하니라

14:19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

삼십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풀
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
올라갔고

14: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되었던 그
동무에게 준비되었더라

Judges Chapter 15

15:1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
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 가서 가로되
'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'
장인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

15:2 가로되 '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
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
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?
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'

15:3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'이번은 내가
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
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'하고

15: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을 붙들어서 그
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취하고 그 두 꼬리
사이에 한 화를 달고

15:5 화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
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
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

15:6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
행하였느냐? 혹은 대답하되 짐나 사람의
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
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
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
불사르니라

15:7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'너희가 이같이
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
후에야 말리라'하고

15:8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
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

15:9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에
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

15:10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'너희가
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?' 그들이
대답하되 '우리가 올라오는 삼손을
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
행하려 함이로라'

15:11 유다 사람 삼천명이 에담 바위틈에
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'너는 블레셋
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

?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
'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'그들이 내게 행한
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'

15:12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'우리가 너를
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
내려왔노라'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'너희는
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'

15:13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'아니라
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
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
아니하리라'하고 새 줄 둘로 결박하고

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

15: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이
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르는 동시에
여호와와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 때 그
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
손에서 떨어진지라

15: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
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일천명을 죽이고

15:16 가로되 '나귀의 턱뼈로 한더미
두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
일천명을 죽였도다'

15:17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
내어 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히라
이름하였더라

15:18 삼손이 심히 목마르므로 여호와께
부르짖어 가로되 '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
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
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
빠지겠나이다'

15:19 하나님의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
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
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
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
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

15: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
사사로 이십년을 지내었더라

Judges Chapter 16

16:1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
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

16:2 혹은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
'삼손이 여기 왔다'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
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증용히

하며 이르기를 `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' 하였더라

16:3 삼손이 밤 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 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

16:4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

16:5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일천 일백을 네게 주리라

16:6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`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'

16:7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`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'

16:8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

16:9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`삼손이여,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' 하니 삼손이 그 칩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

16:10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`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네게 말하라'

16:11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`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'

16:12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더라

16:13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`당신이 이 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

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'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`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'

16:14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`삼손이여,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'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

16:15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`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?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' 하며

16: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

16:17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`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'

16:18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포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`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번만 올라오라'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

16:19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

16:20 들릴라가 가로되 `삼손이여,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'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`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'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

16:21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늦줄로 매고 그로 옥 중에서 멧돌을 돌리게 하였더라

16:22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

16:23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`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'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

16:24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`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

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'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

16: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'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'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

16: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'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'하니라

16: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

16: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'주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뺄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!'하고

16:29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, 하나는 오른손으로 꺾 의지하고

16:30 가로되 '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'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

16:31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년을 지내었더라

Judges Chapter 17

17: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

17:2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'어머니께서 은 일천 일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' 어머니가 가로되 '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'하니라

17:3 미가가 은 일천 일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머니가 가로되 '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

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'

17:4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

17:5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

17: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

17:7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

17:8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

17:9 미가가 그에게 묻되 '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' 그가 이르되 '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'

17:10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'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'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

17:11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

17:12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

17:13 이에 미가가 가로되 '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'하니라

Judges Chapter 18

18:1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

18:2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'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'하며

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
18:3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'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?'
18: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'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'
18: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'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'
18:6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'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'
18:7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도 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함이라
18: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'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'
18:9 가로되 '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?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
18:10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'
18:11 단 지파 가족 중 육백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
18:12 올라가서 유다 기랴여아림에 진 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 곳은 기랴여아림 뒤에 있더라
18:13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
18:14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'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?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'하고

18:15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
18:16 단 자손 육백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
18:17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육백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
18:18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'너희가 무엇을 하느냐?'
18: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'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,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?'
18:20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
18:21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
18:22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
18:23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낮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'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?'
18:24 미가가 가로되 '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?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?하느냐'
18:25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'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'하고
18:26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
18:27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

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

18:28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흙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

18:29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

18:30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

18:31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

Judges Chapter 19

19: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

19:2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녁달의 날을 보내매

19:3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필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

19:4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리매 그가 삼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

19:5 나흘 만에 일찌기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`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`

19:6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`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`

19:7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

19:8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

`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`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

19:9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`보라 !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!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찌기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`

19:10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들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

19:11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`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`

19:12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`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`하고

19:13 또 그 종에게 이르되 `우리가 기브아나라 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`하고

19:14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

19:15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

19:16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

19:17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?

19:18 그가 그에게 이르되 `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

19:19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쟈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 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

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'

19:20 노인이 가로되 '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'하고

19:21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

19: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'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'

19:23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'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'

19:24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는즉 내가 그들을 끌어 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욱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'하나

19:25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 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욱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

19:26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

19:27 그의 주인이 일찌기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

19:28 그에게 이르되 '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'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

19:29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열 두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

19:30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'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' 하나니라

Judges Chapter 20

20:1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

20:2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이었으며

20:3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'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'

20:4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'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

20:5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욱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

20:6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라

20:7 이스라엘 자손들아 ! 너희가 다 여기 있는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'

20:8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'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

20:9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뽑아서 그들을 치되

20:10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에 열, 천에 백, 만에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' 하나니라

20:11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

20: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'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이뇨 ?

20:13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

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'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
20:14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
20:15 그 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이만 육천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칠백인데
20:16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 백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
20:17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사십만명이니 다 전사라
20: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벤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?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
20: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
20:20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향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
20:21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을 땅에 앞드러뜨렸으나
20:22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향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향오를 벌이니라
20: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'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?'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
20:24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
20:25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일만 팔천을 땅에 앞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
20:26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벤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
20:27 여호와께 물으니라 (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

20:28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)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'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'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
20:29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
20:30 이스라엘 자손이 제 삼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향오를 벌이매
20:31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궤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곁 한편은 벤엘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삼십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
20:32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'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궤어내자'하고
20:33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 향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
20:34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일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
20: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 일백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
20:36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간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
20:37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
20:38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'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'하고
20:39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삼십명 가량을

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'이들이 정녕
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'하다가
 20:40 연기 구름이 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서
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
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
 20:41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
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
 놀라
 20:42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
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
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
 진멸하니라
 20:43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
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
 짓밟으매
 20:44 베냐민 중에서 옆드러진 자가 일만
 팔천이니 다 용사더라
 20:45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
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길에서 이스라엘이 또
 오천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뎠으니
 이르러 또 이천명을 죽였으니
 20:46 이 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의
 옆드러진 것이 모두 이만 오천이니 다
 용사더라
 20:47 베냐민 육백명이 돌이켜 광야로
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녁달을
 지내었더라
 20:48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
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
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

Judges Chapter 21

21: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
 맹세하여 이르기를 '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
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'
 하였더라
 21:2 백성이 벳엘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
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 통곡하여
 21:3 가로되 '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!
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
 이즈러졌나이까?' 하더니
 21:4 이튿날에 백성이 일찌기 일어나서 거기
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
 21:5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'이스라엘 온
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

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? 하니 이는
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
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
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
 21:6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
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'오늘날 이스라엘 중에
 한 지파가 끊쳤도다
 21:7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
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
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
 아니하리라' 하였도다
 21:8 또 가로되 '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
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
 누구뇨?'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
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
 아니하였으니
 21:9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
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
 21:10 회중이 큰 용사 일만 이천을 그리로
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
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
 치라
 21:11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남자와
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
 21:12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
 젊은 처녀 사백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
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
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 오니라 이는
 가나안 땅이더라
 21:13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
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
 21:14 그 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
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
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
 부족하므로
 21:15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
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
 지파가 꺾이 나게 하셨음이더라
 21:16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'베냐민의
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
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?'
 21:17 또 가로되 '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
 자에게 마땅히 기업을 있어야 하리니
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
 없으리라

21:18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 이로다'

21:19 또 가로되 `보라, 벤엘 북편, 르보나 남편 벤엘에서 세 겹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와 절기가 있도다'하고

21:20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`가서 포도원에 숨어

21:21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려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

21:22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

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'하매

21:23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효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

21:24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,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

21: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

성경 구절과 묵상 노트는 Aaron 채플린님께서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. CHAPEL.today